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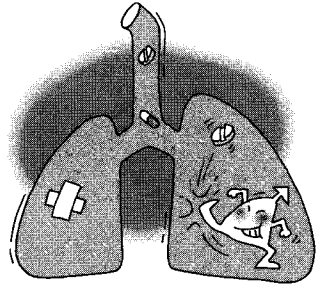
## 결핵치료 실패의 주원인은

글 김세규(연대 세브란스병원 호흡기 내과) / 그림 공보혁

약 한 달 동안 심한 마른기침을 하다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24세의 여자 환자가 있었다. 흉부 X-선 촬영을 한 결과 사진상 좌상엽에 활동성 폐결핵이 관찰되어 아이소니아지드, 마이암부톨,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의 네 가지 항결핵약제로 결핵 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2개월 동안 항결핵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1년 후 다시 내원했다. 그동안 미국에 공부하러 연수를 나갔다가 최근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귀국하였으며 항결핵약은 복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원 당시 촬영한 흉부 X-선 사진을 보니 좌상엽의 폐결핵 병변이 이전



에 촬영한 가슴 사진과 비교하여 현저히 악화되어 있었고 객담 도말 검사상 결핵균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결핵이 재발하여 더욱 악화된 것. 결국 환자는 동일한 항결핵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내성이었다. 2개월 동안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달리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약제내성 검사를 해보니 현재 사용 중인 약제에 모두 내성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차 결핵 약제로 교체하게 되었고, 이후 일시적인 증상의 호전이 있었으나 위장장애 및 간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약 복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이상이 되었지만 환자는 아직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약제가 개발되지 않았던 과거에 폐 결핵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안정을 취하고 영양을 섭취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었다. 요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의 안정 치료가 대표적인 요양법이였다.

요즘은 좋은 치료 약제가 많이 개발되어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폐결핵은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들로 결핵 치료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의사의 처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 치료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결핵 치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복약이다. 그런데 환자 스스로의 판단으로(민간요법 등에 의해) 투약을 중단하면 추후에도 약이 잘 듣지 않게 되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

결핵약은 장기 복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다 보면 매일 같이 몇 달 동안 약을 복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지겨워지기 쉬운데, 이렇게 불규칙하게 약을 복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약이 결핵균에 대해 효과가 없어지는 내성이 생겨서 결핵 치료에 실패할 수 있다.

결핵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약의 복용을 중단하기 쉽다. 그러나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약 복용을 일찍 중단해서는 안된다.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고 해도 완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핵은 일반적으로 다른 질병, 예를 들어 당뇨병 같은 질병이 있으면 합병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두 가지를 함께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원인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결핵도 잘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핵약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을 조절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결핵 치료, 약 먹기가 번거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담당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